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1호 【루게 제23023호】 주제 99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
나는 월남공산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정이 넘치는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월남과 조선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형제적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빛나는 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커다란 승리를 계속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증대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새로운 많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농득마잉
2010년 2월 24일
하노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가족이 선물과 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가족이 선물과 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장인 후보중의 외손녀 주혜교가
1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 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경비대 분대장이었던 김정철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수여

혁명적지지를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경비대 훈수출속부대 분대장이었던 김정철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수여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혁명적정신을 발휘하여 혁명동지들을 구원한 조선인민경비대 분대장이었던 김정철에게 수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가훈장 제1급이 그리고 예극열사장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다.
조선인민경비대 관관들인 리영철, 리철, 사관 김성학, 영웅의 어머니 문윤희가 토론했었다.
그들은 혁명전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혁명동지들을 구원한 조선인민경비대 분대장이었던 김정철에게 수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가훈장 제1급이 그리고 예극열사장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다.
조선인민경비대 관관들인 리영철, 리철, 사관 김성학, 영웅의 어머니 문윤희가 토론했었다.
그들은 혁명전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도발자들에 대한 불라는 적개심을 안고 총돌격전에서 비약의 폭풍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일군들의 반향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겠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우리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범람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미제와 남조선피괴환풍들에 대한 치사는 중요과 멸적의 투지로 가슴끓이며 원수들의 침략행동을 준벌히 단죄 규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원수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기지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적들의 반혁명적정세를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불은 불로 다스리며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며 핵무기를 휘두르면 더 위력한 핵억제력으로

를 안겨주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원수들의 위풍수수를 호되게 후려갈긴다. 기세로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일터마다에 혁신과 비약의 폭풍이 일어 나도록 하였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손에는 총대들,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틀어잡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관철하여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당의 구상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원수격멸의 투지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에 토대하

어 화확제품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한 투쟁을 벌여 화확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흉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암모니아1계열대공사사를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고 흉남계약공장을 최신식으로 개건함으로써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올해의 총공세를 힘있게 펴나가겠다.
이와 함께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 생산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물이 높이 울려나오도록 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기여하며 동북부동맹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농사에는 더 큰 령향을 충당하며, 총집중하여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즐기자며 벌려나가겠다.
올해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

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세를 하늘을 찌를듯 높다.
우리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모든 당조직들이 조직정지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세 도가 총공세의 열풍으로 세차게 휩쓸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수들에 대한 불라는 적개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외쳐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어나나감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안고 10월의 경축광명을 멋있게, 궁지없이 들어섰다.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래중수
강화하였다.
우리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영농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감에 모든 농사일을 함께 농업의 요구대로 하도록 함으로써 올해에 반드시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 올렸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환풍들이 전쟁 열에 들떠 광분하면 할수록 혁명적대고조의 불길같이 총공세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열의는 활화산처럼 더욱 세차게 타고 올랐었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피괴환풍을 지른다면 우리는 한손에는 총대들, 다른 한손에는 낫을 들고 호전광명에서 준엄한 철추를 내릴것이다.
곡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황인범

농업전선을 믿음직하게 지킬 의지로

민내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있으며 당의 위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농업생산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상적각오와 사업기공에 달려있다.
우리는 수명결사용이, 결사관철의 정신을 삶과 투쟁의 과업으로 삼고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겠다. 당의 총지휘명령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며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겠다. 그리고 적지적각, 적기적각의 원칙에서 지대적각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이 배반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기술적지도도 더욱

말하게 감행되고있는 이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사태를 용납할수 없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폭속에서 불멸의 힘을 다지고자하는 혁명적투쟁과 당의 투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대업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이 어찌 정의로운 위업을 가로막아나서는 평화의 교관자들을 용서하겠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을 즐기는 미제와 남조선피괴환풍들을 정의의 폭풍으로 완전히 쓸어버리고야 마땅하다.
우리 전력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전력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 벌여지고 있는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



원수격멸의 격동태세를 갖추고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기료품공장에서 일하는 선공격력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은 백전백승한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이긴다

날로 악화하게 감행되고있는 적들의 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 선반대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적들이 감히 침략전쟁의 도 화선에 불을 단다면 도발자들의 말 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게 될것이라고 선언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영웅적기사의 파사이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 업을 달가워하지 않는 원수들의 소 굴을 통째로 박산내는 우리 천만군 민의 무자비한 불벼락이다.

우리에겐 한다면 기어이 하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천하제일명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다. 불멸의 그 존엄한 불리보아도 우리 천만군민의 온몸에서 승리의 기개가 솟아오르는 불세출의 선군명장 김정일동지!

폭풍처럼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 에 높이 모신 영광과 행복, 찬란한 패일의 더 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서 용담 마냥 더욱 끓어번진다. 나라의 전성기는 무엇으로 하여 펼쳐지는것인가. 민족사적인 대승리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오직 승 리와 번영의 한길로만 자랑스럽게 걸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물 음에 세상을 향해 소리를 높여, 당당 하게 대답한다. 위대한 선군명장을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혁명만이 펼칠수 있는 나라의 전성기, 민족사적인 대승리 이라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의 력사는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행운의 력사이다. 오늘의 승리가 크면 클수록, 혁명 이 더 멀리 전진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압만처럼 굳어진 이

신념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사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감히 어찌 보려는 자들은 추호도 용서치 않는 위대한 승리의 력사, 위대한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사나운 풍파를 헤치고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자발적 자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 비상한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조국앞에 일촉즉발의 전진위 위를 조성될 때마다 원수들을 야로 퍼락거리며 승리와 영광만을 위로 새겨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그 어떤 침략의 무리가 달려들어 도 단애에 쳐갈기고 우리 삶의 보금 자리를 지킬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 수단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에 대한 비결이 없는 자부가 가슴에 던져 넣는 자들. 지금으로부터 17년전 우 주공간을 채우었던 최고사령관명령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매어리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앞세워 위 한 원수들의 책동이 최절정에 이른 때가 아니었던가.

《만일 그 누구든 우리를 감히 건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용단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즉시 실천으로 보여줄것이다.》 이것은 원수들의 발발을 진동시 켜 한 하나의 폭탄이었다. 한편 온갖 감언리설로 우리에게 빌붙던 적들의 추악한 물결은 어찌했는가. 《사서는 그와 같은 위협적인 발 언이 뒤어 나오지 않게 하였다.》 《그와 같은 말은 적절치 않은것으로 본다.》

원수는 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을 닮아마련이다. 원수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은 오랜 세월 쌓인 원한과 복수로 이 끌거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오려려 기질을 하는것과도 같은 어 리석은짓이다. 침략의 무리들과 그 추종자들과는 결단코 싸워 무릎을 꿇게 만드는것이 선군조선의 기치이며 배짱이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림에서 굳게 맹세해...

우리에겐 한다면 기어이 하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천하제일명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다. 불멸의 그 존엄한 불리보아도 우리 천만군민의 온몸에서 승리의 기개가 솟아오르는 불세출의 선군명장 김정일동지!

폭풍처럼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 에 높이 모신 영광과 행복, 찬란한 패일의 더 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서 용담 마냥 더욱 끓어번진다. 나라의 전성기는 무엇으로 하여 펼쳐지는것인가. 민족사적인 대승리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것인가.

우리의 자발적 자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 비상한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조국앞에 일촉즉발의 전진위 위를 조성될 때마다 원수들을 야로 퍼락거리며 승리와 영광만을 위로 새겨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그 어떤 침략의 무리가 달려들어 도 단애에 쳐갈기고 우리 삶의 보금 자리를 지킬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 수단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에 대한 비결이 없는 자부가 가슴에 던져 넣는 자들. 지금으로부터 17년전 우 주공간을 채우었던 최고사령관명령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매어리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앞세워 위 한 원수들의 책동이 최절정에 이른 때가 아니었던가.

원수는 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을 닮아마련이다. 원수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은 오랜 세월 쌓인 원한과 복수로 이 끌거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오려려 기질을 하는것과도 같은 어 리석은짓이다. 침략의 무리들과 그 추종자들과는 결단코 싸워 무릎을 꿇게 만드는것이 선군조선의 기치이며 배짱이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림에서 굳게 맹세해...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 만수대언덕에서 — 본사기자 강 광 혁 찍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대통령들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로 때 또 고 공 화 국 대 통 령 포 르 에 소 집 나 그 나 씩 그 베 각 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귀국인민의 지지를 받아 다시금 또 고 공 화 국 대 통 령의 중책을 지니게 되는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 양

썬따야고 칠 레 공 화 국 대 통 령 세 바 스 피 안 삐 네 라 에 체 니 케 각 하 나는 당신이 칠레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 양

주제 99 (2010)년 3월 11일 평 양 개성시 림한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도업적 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진행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구체적인 계획 을 세운데 기초하여 선군정치의 본 질과 독창성, 정당성, 불패의 생활 강령에 대한 문법지식숙달과 연구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조 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시는 그의 불멸의 업적들 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업적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사색적 교양이다. 그의 업적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사색적 교양이다. 그의 업적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사색적 교양이다. 그의 업적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사색적 교양이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평균을 넘어서고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 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무적 필승의 평균술과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들가운데는 천재적인 군사적지략으로 미제의 대형 간첩비행기를 격추한 사실도 있다. 주제 58 (1969)년 3월 어느날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인민무력부 의 한 일군을 찾오시여 요즘 적들의 움직임이 어떤가고 물으시었다. 당시 적들은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정찰행위를 매일과 같이 벌리면서 현대적인 전자탐침을 갖춘 대형간첩비행기를 우리 명공 에 자주 침입시키고있었다. 그 일군으로부터 적들의 이러한 군사적책동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받은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곧바로 이르 오주 우리는 공화국을 건드리 는

원수는 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을 닮아마련이다. 원수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은 오랜 세월 쌓인 원한과 복수로 이 끌거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오려려 기질을 하는것과도 같은 어 리석은짓이다. 침략의 무리들과 그 추종자들과는 결단코 싸워 무릎을 꿇게 만드는것이 선군조선의 기치이며 배짱이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림에서 굳게 맹세해...

단 호 한 징 벌

정하며 방금전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부터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의 우리 나라 영공침입에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데 대한 전두명령을 받았다고 그에게 말씀올리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미제가 지난해에 바다에서 탄타격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는 공중으로 접어들고있습니 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명령하신데 이르면 하늘에서 완대를 안강시 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간첩비행기를 없애기 위한 작전방안은 썼는가고 물으시었다.

아직은 구체적인 작전방안을 세우지 못하였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함께 토론해보자고 하시면서 미제 의 대형간첩비행기의 체제에 대하 여 제차 물으시었다. 그 비행기로 말하면 미국의 최신 형 전자정찰기였다.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를 단 방에 썩멸할수 있도록 모든 작 전방안을 다 세우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휘관들은 전투 조직을 잘하여야 합니다. 전투 는 시작하기 전에 벌써 승리가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수령님께서 내보신 주체전법 대로 싸워야 백전백승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얼마후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는 된 벼락을 얻어맞아 격추되었고 비행기에 탔던 놈들은 황천왕이 되고말았다.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격추, 이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예 지와 천재적인 군사적지략의 일대 승리였으며 침략자들에게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징벌이었다. 본사기자 활 명 의

대고조시대 경제일군들이 지켜야 할 일본새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전례없는 총공세의 열풍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인민의 모든 리 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대한 당의 도의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대고 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는데 서 경제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경제일군들이 생산자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경제조직사업 을 따라세우면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전진시킬수 있습니다.》 경제일군들은 나라의 경제사업과 살림살이를 직접 맡고있는 지휘성 원들이다.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 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의 성 과는 경제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의하여 좌우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에서 사업실적들 을 올려서 일군들을 높이 평가해주시 며 대고조시대 일군들이 지켜야 할 혁신적안목과 투쟁기풍, 일본 새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계신다. 경제일군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현실 로 꽃피우려는 결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진위투사자가 되 기 위하여는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고조시대 경제일군들이 지켜야 할 일본새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면 앞을 떠나보며 대담하게 작전 하는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사 업태도이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인류의 사회경제발전속도는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일본 새로는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경제강국의 높은 명타루 를 점령할수 없다. 우리 당은 이미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에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나 라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할수 있는 모든 분야와 방면과 방도들을 다 밝혀주 었다. 문제는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문제는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문제는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문제는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정약하고 최대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경제사업을 얼마나 면밀히 타산하 고 간지게 조직하는가에 따라 생산 과 경영활동의 효과성, 실리가 좌 우된다. 경제일군들은 경영활동에 서 탈거된 생산과파제를 질적으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는 생산조직, 기술관리, 자재보장, 로동조직, 제품관리, 재정관리같은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일군들이 경영활동에서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관리를 능동적으로 행하는것이 높은 생산적양질의 근본보장이 다.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함께 생산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 되도록 전투지휘를 잘하여야 생산 과 경영의 승리를 거둘수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경제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조직전개해나가는 능동적인 지휘능 력이다. 힘은 대중에게 있고 성과의 비결 은 책임 조직사업에 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아 지고 치밀하고 과학적인 조직지휘사업 이 안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과업수 행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경제 사업을 수학하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여기에는 로력과 설비, 자재를 어느 부분에 얼마나 투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에 따라 경제사업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추동력을 어떻게 강화하여야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 건설과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문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안는 순 건 일군은 작전에서 힘을 높일뿐 한 데 대하여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전법으로 적간첩비 행기를 격추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군사적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 하였다.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를 단 방에 썩멸할수 있도록 모든 작 전방안을 다 세우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휘관들은 전투 조직을 잘하여야 합니다. 전투 는 시작하기 전에 벌써 승리가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수령님께서 내보신 주체전법 대로 싸워야 백전백승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얼마후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는 된 벼락을 얻어맞아 격추되었고 비행기에 탔던 놈들은 황천왕이 되고말았다.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격추, 이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예 지와 천재적인 군사적지략의 일대 승리였으며 침략자들에게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징벌이었다. 본사기자 활 명 의

리 철

장군님 꽃피주신 내 조국이라고

박고 약동적으로 (♩ = 126)

작사 리영철
작곡 김학민



1. 그림같은 선경마를 찾아서 노래할가
 옥야천리 새물길을 따라 서자랑할가
 천지개벽새 모습 펼쳐진 이 땅은
 장군님 꽃피주신 내 조국이라고
 아 장군님 꽃피주신 내 조국이라고

2. 강성당의 전기로엔 쇠물꽃 피어나고
 하늘에는 우리 위성 더 높이 떠올랐네
 천지개벽새 모습 끝없는 이 땅은
 장군님 꽃피주신 내 조국이라고
 아 장군님 꽃피주신 내 조국이라고

3. 우리 인민 누리며 살 만복을 주시려
 헤쳐오신 자옥마다 락원이 솟아났네
 선군의 길 따라서 더욱더 부강할
 장군님 꽃피주신 내 조국이라고
 아 장군님 꽃피주신 내 조국이라고

대교조전투장에 새겨지는 값높은 위훈

3화수송연구소를 찾아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나서며 무슨 일이나 과학기술적으로 파악하고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하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3화수송연구소를 찾았다.

이미 천성천전판 사공에 리용할 의지작도설계를 끝낸 사실을 알고있는 우리는 그것을 담당한 연구집단부터 만나고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구집단의 과학자들과 인사를 나누어줄 수 없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에 대한 공동주의 사상과 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서부지구전선으로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연구소일군인 최철수동무는 그 용감한 의지작도설계를 끝낸 사실을 알고있는 우리는 그것을 담당한 연구집단부터 만나고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구집단의 과학자들과 인사를 나누어줄 수 없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에 대한 공동주의 사상과 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서부지구전선으로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연구소일군인 최철수동무는 그 용감한 의지작도설계를 끝낸 사실을 알고있는 우리는 그것을 담당한 연구집단부터 만나고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구집단의 과학자들과 인사를 나누어줄 수 없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에 대한 공동주의 사상과 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서부지구전선으로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연구소일군인 최철수동무는 그 용감한 의지작도설계를 끝낸 사실을 알고있는 우리는 그것을 담당한 연구집단부터 만나고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구집단의 과학자들과 인사를 나누어줄 수 없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에 대한 공동주의 사상과 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서부지구전선으로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3월의 내 조국강산에 가득히 내린 흰눈을 보느라니 감격과 환희로 끓어넘치던 며칠전의 합동 시군군대회장이 생각난다.

그날 아버지장군님을 높이 모신 군중대회장에 송이송이 내리던 흰눈...

그 눈꽃을 가슴에 안으며 풍도 합홍의 룬계급, 아니 온 나라 사람들은 눈물을 적시었다.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고,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드디어 풀어드릴 수 있게 되겠다고 하시며 비탈론숨을 쥐고서 날고 싶을 때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영상이 눈앞에 떠오르려 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다.》

하늘에서는 흰눈이 내리고있었지만 그날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것은 눈부시게 하얀 비탈론숨이었다.

그 비탈론숨을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맞으신 눈은 그 얼마 이던가.

우리 장군님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탈론합기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소식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불과 며칠만은 온 나라의 대경사에 걸친 날 사람들은 미처 다 못봤다. 장군님께서 진논까지를 맞으시며

예술영화 《내가 사는 가정》 시사회 진행

조선 4. 25에 출영한 예술영화에서 예술영화 《내가 사는 가정》을 만들어 내었다.

영화시사회가 11일 대동문화관에서 있었다.

당과 국가간부들, 우당위원장들, 성, 중앙기관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영화를 감상하였다.

영화는 혁명전사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주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보답의 길을 역성계 걸어가라는 김광철영웅가정에 대한 실재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주인공 순희는 꽃나치며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영웅담계당의 선군명도를 앞장서서 받들어갈 일념 안고 김광철영웅가정의 며느리가 되어 최전선에 새살림을 편다.

관란의 아내, 병사들의 어머니로 진심을 바치는 나날에 그는 영웅의 부모, 형제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참된 사랑을 체득하게 되며 그 어떤 명에도 바림이 없이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간다.

수령결사투의 제일선에서 영웅의 넋을 뜻없이 이어가는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을 형상한 영화를 통하여 관람자들은 위대한 평정의 품속에서 지라난 훌륭한 애국가정들이 이기에 선군현명의 총대가 굳건하며 조국의 앞날이 창창함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시대의 영웅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당창건 65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돌격전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3월의 흰 눈

보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마음달리실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평생 눈비를 맞으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신 수령님을 생각하셨을것이다. 하루머리 현대적인 방직공장이 일떠서서 고운 비단같이 곱고치면 쏟아져나오는것을 보았으면 평생소원이 풀릴것 같다고 하시던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말씀도 되새겨보았을것이다.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념원을 받들어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며, 인민을 위해서는 눈비를 맞고도 좋고 백발을 새워도 락이 되고 하시며 혁명적대교조의 진로에서 눈보라강행군길을 이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오신 위대한 헌신과 로고의 그 자옥 하나하나가 그대로 눈송이가 되어 이 땅에 흰눈의 세계를 펼친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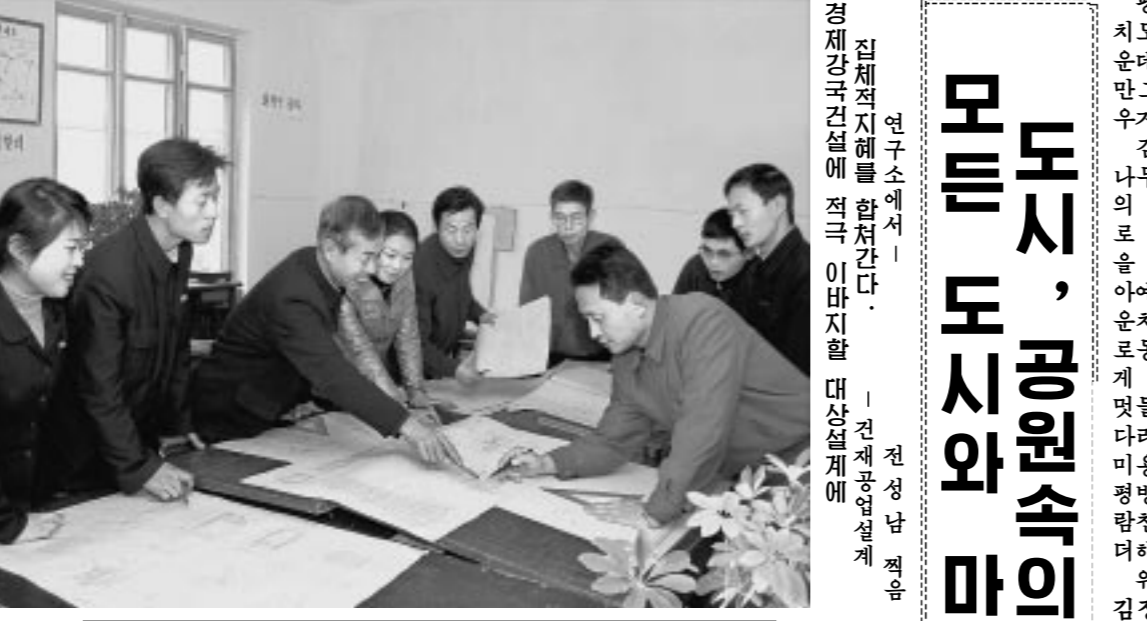
흰눈을 보며 생각하네 된다.

땅에 스며들어 물이 되고 지양분이 되어 새싹들을 피우며 줄기를 자라워 열매를 맺게 하는 흰눈, 오곡백과를 주렁지는 풍요한 가을의 보이지 않는 뿌리인 흰눈!

흰눈앞에서 삼가 우러른다. 흰눈처럼 자신의 삶, 자신의 한평생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려는 밑뿌리로 묻어가는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 우리 장군님!

불세출의 위인의 한없이 순결하고 위대한 헌신의 세계를 순간도 잊지 말라고, 언제나 그 세계에서 살라고 이 3월에도 눈을 내리며 속삭이신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우리 나라와 쿠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한 쿠바상품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진행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쿠바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한 쿠바상품전시회 및 영화감상회가 11일 주조쿠바공화국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오동철 무역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사들이 초대되었다.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대사가 대서관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쿠바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상품들을 돌아본 다음 쿠바에출영한 《쿠바 만세》를 감상하였다.

속에 계속 좋게 발전하고 있다.

적도기네민주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관계가 건밀한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적도기네민주당은 조선로동당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통일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지지와 편대성을 보낼 것이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적도기네 민주당 총비서들의례 방문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준봉 적도기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일 루카스 느게마 에르소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들의례 방문하였다.

적도기네와 조선사이의 친선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오동철 무역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사들이 초대되었다.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대사가 대서관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쿠바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상품들을 돌아본 다음 쿠바에출영한 《쿠바 만세》를 감상하였다.

속에 계속 좋게 발전하고 있다.

적도기네민주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관계가 건밀한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적도기네민주당은 조선로동당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통일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지지와 편대성을 보낼 것이다.

로씨야를 방문 하였던 로씨야 무성대외부장 귀국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를 방문 하였던 공성무성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11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국립음악대학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공장안은 공전같이, 공장밖은 공원같이

평양 방직공장에서

공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이후 공장중업원들의 열의는 비결대없이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수리해, 원리회편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란봉공원에서보다 더 아름답다고, 마치도 공원에 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녀성영웅을 높이 칭찬하셨다.

그것은 우리 로동계급이 가장 깨끗한 환경에서 문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분발하여나섰다.

—공장안은 공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특히 지난해 7월 30일, 온갖 식물의 한가운데 들어앉은듯 수만그루의 나무들이 우거진 속에 자리잡고있다.

감나무, 살구나무, 호두나무를 비롯한 100여종의 나무들이 구내길양옆으로 늘어선 모습도 시선을 끌지만 그보다 날아는 비둘기들은 자연의 운치를 한껏 돋군다. 공장로동자들의 식락을 유쾌하게 하여준다는 양어장우를 덧붙여지게 가로질러간 줄더라도 보기 좋고 리발실, 미용실, 수영장 등이 있는 평양원은 종업원들에게 보람찬 로동의 회회과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꾸리고 문명하게 살아가야 사는 맛도 있고 혁명하는 보람도 있습니다.》

—백두산위인들의 발자취가 어린 영광의 일터에 사회주의정신을 펼치자.

이러한 마음은 공장로동계급의 가슴속에 불길로 타올랐다.

민일출, 김영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의 자각적인 열의도 일군들의 열의에 의해서만 더욱 고조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직적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직포종합직장, 견방종합직장을 비롯하여 한개 종합직장씩 맡고 내려가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정착을 매일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또한 수십년동안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나무심기를 교양적의의가 있게 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렸다. 많은 감나무를 공장구내에 심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었다. 그 나무들을 보면서 세대간인들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많은 비צוע을 차지하는 녀성영웅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전신경찬리를 더욱 그리며 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사업에 자신들의 열정을 바쳐나갔다.

특히 지난해 7월 30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생방역기관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조기이며 위생방역사업을 직접 조직 진행하는 담당자입니다.》

강서구역위생방역소의 일군들이 올해 정초부터 구역안의 위생방역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한사합력이 펼쳐나서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방역소에서는 우선 모든 보인일군들이 당의 예방의학적방침 관철의 책임선에 선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최선적정사업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가하게 조직정해나가고있다.

소장 김도혁, 과장 강용길동무를 비롯한 방역소의 일군들은 청산리, 잠자리, 덕동리를 비롯한 구역안의 여러 리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위생선전사업과 방역사업의 도수를 더 한층 높이고있다.

방역소에서는 구역안의 위생방역실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해당 대책을 세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지역별특성과 주민구성상태, 위생방역조건과 환경상태에 맞게 질병을 미리막으며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예견정있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방역소에서는 또한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신형독감을 미리막기 위한 위생선전과 예방사업, 겨울철유해공공방역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구역안의 여러곳에 감시지점들이 세워지고 구역비상방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속에 방역소에서는 위생선전사업, 질병예방, 홍보사업에 힘을 기울여 위생사업이 기동성있게 벌어지고있다.

방역소일군들은 구역안의 해당 단위 일군들과 긴밀한 협동밑에 평범한 주민들을 불러일으켜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들의 은폐지들에 대한 살충소독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방역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겨울철유해공공방역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방역소에서는 또한 청단들과 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생방역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방역사업을 짜고들여

신이주시 남중지구종합연구소에서

2중3대혁명붉은기 신의주시 남중지구종합연구소의 로일군들이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일념으로 위생선전사업에 큰 힘을 냈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생선전사업과 함께 여러가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위생선전보급사업도 널리 벌려야 하겠소이다.》

이곳 로일군들의 진정에 떠받들려 짧은 기간안에 종합연구소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곳을 찾는 주민들도 세 집에 들어서는 기분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자신들의 탐과 위생이 그대로 스며들고 있는 위생선전, 위생선전보급의 거점

이 과정에 모두의 가슴속에는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더욱 깊어졌다.

생명의 동을 높은 현장에서도 구내길에서도 노소레리 사탕에 보합하는 길이 있다.

공정에서는 지체없이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백두산전속연구원 연구사들과의 협동밑에 공기조화기를 편직 사직장에 설치한데 이어 공장의 수직적직장도 공전과 같이 꾸리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 나날엔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이 태어났다.

공장구내길을 싸리비자루로 쓸던것을 먼저가 날릴가 봐 밤비로 정히 온다는 이야기, 자기가 맡은 나무의 감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 알두알 즐겨움속에 세여보는것이 이제는 종업원들 스스로의 일과로 되었다는 이야기, 그림자같이 온 구내를 뒤덮는 여름도 좋지만 눈이 풍동 내리는 겨울은 아침구내길도 좋아 줄을 걸어 두르고 아버지처럼 단정하게 다녀가고는 이었다.

본사기자 방 경 찬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알렉산드르 쾰프로

루 원 일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은혜로운 사랑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은 지금 그 무슨 《원칙고수》론을 집요하게 들고나오면서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극구 정당화하고있으며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리명백은 그 무슨 《기념일설》이라는 데서 지난 2년동안 《일방적인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식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파편적인 꾀변을 늘어놓던 끝에 우리가 저들을 《경제협력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소리를 냈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도 이에 반발을 맞추면서 《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한다.》는 1. 《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관계는 있을수 없다.》느니 하는 소리로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악화시킬 기도를 드러냈다. 한편 《통일부》페기리들은 이전 《정권》시기 나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려놓고 그것을 《남북경제협력 핵문제를 인권문제를 편견》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시켰으며 조선반도핵확산을 표현도 《북비핵화》로 바꾸어버렸다.

보수세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와 공조도 불문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해던비고있다. 지난 2년 말 미국에서 있는 제 2차 남조선미군 《외교장관급전담대회》라는것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서서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최상》이라고 상진에 낮보듯 거운 소리로 발라뒀으면서 북과의 관계에 대화와 함께 《제제》를 병행해달라느니, 평화협정체결문제는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을 때에만 논의해달라느니 하고 청탁하는 추태를 부렸다.

북남대결에 환장한 보수세당의 흉악한 정책은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존엄

과 체제를 강히 걸고들며 저들 《국회》에서 체제대결을 고취하는 모략적인 《북인권법안》 채택놀음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데서도 드러나고있다.

남조선피괴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의해 우리의 주동적인 자제로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결상태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노력인 《근본적변화》가 아닌 《기술적변화》로 모퉁이로 모퉁이로 마련된 북남대화와 접촉들은 결렬, 파탄상태에 처하였다. 입만 벌리면 그 무슨 《급변사태》를 떠벌리며 광판적으로 벌리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사상 류폐없는 대결론인 《실용성》의 《대북정책》에 의해 활력을 띠고 전진하던 북남관계는 삽시에 열이 불고 북남대화와 협력사업들은 모조리 단절, 동결되었으며 남조선에서 번복돌연운동은 가차없이 탄압당하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세당은 파편지하게도 저들이 《원칙을 고수》한 결과 북남관계가 《진전》하고있다고 요란히 광고하면서 《남북관계를 본래대로 올려놓으는것이 과제》라고 황실수설하고있다. 이것은 반역당이 고대하는 《원칙고수》론과 그에 따른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진목적이 북남관계를 모든것이 차단된 10년전의 상태로 돌려놓는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의 궁극적목적은 북침야망의 실현이다.

보수세당은 언제 한번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적이 없다. 저자들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북남공동선언인들의 진전을 병행한 내용들을 다 뛰어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일뿐이다. 대결판심자들은 항시적으로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대항하며 여러석대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왔다. 저자들이 우리에게 대한 대가들을 반드시 청구한다는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은 그 무슨

《원칙고수》의 간판밑에 북남대결시대를 전면부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그 무슨 《잃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며 6. 15 통일시대의 흐름을 과거의 10년전으로 되돌려세우기 위해 미처나뉘었던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그들이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에 배치되는 《비핵, 개방, 3 0 0 0》이라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들고나오고 거기에 《상생, 공영》이라는 비단보자기까지 띄우며 극구 합리화한 리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 무슨 《선택적개기》와 《개방》을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사상 류폐없는 대결론인 《실용성》의 《대북정책》에 의해 활력을 띠고 전진하던 북남관계는 삽시에 열이 불고 북남대화와 협력사업들은 모조리 단절, 동결되었으며 남조선에서 번복돌연운동은 가차없이 탄압당하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세당은 파편지하게도 저들이 《원칙을 고수》한 결과 북남관계가 《진전》하고있다고 요란히 광고하면서 《남북관계를 본래대로 올려놓으는것이 과제》라고 황실수설하고있다. 이것은 반역당이 고대하는 《원칙고수》론과 그에 따른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진목적이 북남관계를 모든것이 차단된 10년전의 상태로 돌려놓는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의 궁극적목적은 북침야망의 실현이다.

보수세당은 언제 한번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적이 없다. 저자들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북남공동선언인들의 진전을 병행한 내용들을 다 뛰어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일뿐이다. 대결판심자들은 항시적으로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대항하며 여러석대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왔다. 저자들이 우리에게 대한 대가들을 반드시 청구한다는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화국핵소동과 《제제》소동에 앞장서 들어치는것도, 모략적인 《인권》문제, 《급변사태》설을 집요하게 떠벌리며 체제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는것도 모두가 감히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제하의 통일》문상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선제타격》에 의한 전쟁도발이든, 그 무슨 《급변사태》에 의한 전쟁도발이든 보수세당은 조선반도에서 거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리성을 잃고 헤엄치고있다. 지금 피괴호전파들이 우리의 거들되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군과 야합하여 강행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시행전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새로운 《선제타격》각본인 《신원합작계획 5 0 1 2》와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따른 《작전계획 5 0 2 9》에 따라 벌어지고있는 사실이 그것들 립증해주고있다. 대결전쟁열에 들뜬 호전파들이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을 위한 실전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에겐 민족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가 귀중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여 구할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보수세당은 상대를 똑바로 알고 본분있게 처신해야 한다. 그들이 북과의 화해와 협력, 관계개선을 전면부정하면서 대결에만 몰입듯이 집주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선택은 응당 단호하고 결단성있는것으로 필것이다. 신의에 신의로, 약에는 무자비한 정벌로 대항하는것이 우리의 기질이다.

남조선피괴들이 제아무리 동족대결에 미쳐달라해도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세울수는 없다.

우리의 거배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도전을 민족단합의 힘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중국공당의 숙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력사의 민족앞에 엄청난 반공화국대결을 저지른 대결판심자들은 그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청구 한다는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최철순

언제나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흠모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광주에 사는 박현석주인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고 불면불욕의 현지도들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용모에 가슴뜨거운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민중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 살게 하겠는가. 김정일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여기에 집중되고있다. 수없이 이어지는 그분의 현지도도 민중이 어떤 식으로 품을 먹고 어떤 생활수준을 사용하며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아서 주고 민중의 요구를 해결해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명철방을 찾아내시기 위한것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글에서 《주인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조선로동당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되고있다. 《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주인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1980년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에서도 기본과업으로 부각되었다.

민주세력의 현대연합을 강조

남조선의 미군철수운동본부가 7일 논평을 발표하여 민주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반역 《정권》을 심판할것을 주장하였다.

논평은 당국이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향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여 반민주, 반통일책동에

특히 1984년 2월 16일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인민위원회에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때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신 후 북에서는 주인생활, 의식주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여왔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전영호는 자기의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공영혁명방침을 제시하신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이미 마련된 공영영토에 의거하여 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썼다.

계속하여 글은 《민중생활향상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북의 경제발전전망은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로록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흠모하며 현대사연구원 장현일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년내내 집무의 편수까지 잊으실뿐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과 낮과 밤이 따로없으며 민중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가시는 현지도가 그분의 가장 훌륭한 면모로 유익한 휴식으로 된다.》고 격정을 토로 하였으며 서울에 사는 김수학주인은 《민중을 위해 바치시

는 로고를 띠오 여기시고 민중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는 김정일장군님은 민중중심의 애민정치로 민중에게 행복을 주시는 행복의 창조자이다.》라고 칭송하였다.

《통일뉴스》,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들은 북이 새해공다사실에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때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근로자로서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통신, 방송들은 《북에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식량문제 해결, 경공업분야혁신, 산업시설현대화 등 경제성장사실현에 힘을 쏟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 부친 삶을 누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소망을 담아 한 시인은 이렇게 격정을 터뜨렸다.

가시는 걸음걸음에 민중의 웃음 꽃피어내고 오시는 자욱자욱에 북과의 평이 열려 버려 밝은 세상 우리러 어두운 이남에서 터지는 노래 자 자연의 풍욕은 해주는 곳 민심식의 풍욕은 장군님 계시는 곳

이를 실증해주고있다고 논평은 강조하였다.

논평은 모든 진보세력이 서로의 팀장과 차이, 리해관계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함으로써 이기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해 반민주, 반통일세력을 청산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들 실증해주고있다고 논평은 강조하였다.

가시는 걸음걸음에 민중의 웃음 꽃피어내고 오시는 자욱자욱에 북과의 평이 열려 버려 밝은 세상 우리러 어두운 이남에서 터지는 노래 자 자연의 풍욕은 해주는 곳 민심식의 풍욕은 장군님 계시는 곳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현 《정권》 청산을 호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족의 화해, 협력을 방해하며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피괴당국의 반통일적책동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남북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한 북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그 무슨 《3대조건》이라는것을 계속 외워대며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계획을 가로

막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통일부》가 《신원안건보장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림강이라는 변함》이 없다.》느니 뉘니 하는 망발을 설파하고있는 《대결》은 언급하고 청명한 현 《정권》이 누구를 보고 《신원안건보장》을 제정하지 아니라 저들부족탁압부력을 동원하여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것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민족의 강령한 변연에 잇는 것은 상체를 날갯던민족의 기레의 저주와 규탄을 피하지 못할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성명은 현재 민중이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투쟁의 아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수있도록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 협력을 가로막는 현 《정권》을 청산하자고 호소하였다.

파쇼독재, 반민족세력을 심판할것을 주장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일 모든 진보세력의 단결된 파쇼독재를 심판할것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현 당국의 집권기간은 민주화발전, 경제위기약화, 남북관계개선 등 사회의 모든 면을 초토화시킨 저주로운 나날이었다고 단죄하였다.

현 당국을 그대로 두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 북남관계와 경제의 발전, 민중의 행복을 기대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글은 특히 로동운동과 민주로동당에 대한 폭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현실은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의 현대연합의 결박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글은 모든 진보세력이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

파쇼독재를 심판할것을 위한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참패를 안겨주자고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당국의 기만적인 《실용》정책의 부당성과 반동적인본질을 까밝히고 민중을 각성시키는 사명을 강요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3. 1인민봉기 91돐에 즈음하여 1일 범민족세력심판투쟁에 나설것을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들고일어나 《조선독립민선시》를 제치며 대중적인 선전시위를 벌일 3. 1인민봉기는 오늘도 겨배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때로부터 9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악에 대해 사죄, 배상할 대신 은국주의부활과 독도강탈에 들어치는 등 강도적행위를 일삼고있다고 논평은 단죄하였다.

논평은 더우기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본의 과거죄행을 미화하며 집권유지를 위한 역사외교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논평은 3. 1인민봉기참가자들이 발휘했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현 집권세력의 역사외교책동을 저지시키고 반민족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대강정비》공사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

남조선의 《4대강정비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8일 서울의 명동성당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괴당국의 《4대강정비》공사저지투쟁을 선언하였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당국의 《4대강정비》공사강행으로 자연이 착륙하고 파괴되고 수생태동원 호를 건고이 만신창이 되어 몸부림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대재앙

이 민중에게 들리워질것이라고 하면서 선언문은 사태를 보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4대강정비》공사를 저지시키기 위한 실천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언문은 《4대강정비》공사계획의 전제조건들을 요구하는 시명운동을 전개하며 공사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확대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무위도식자들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피괴통제정의 조조결과 일하지 않고 놀고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최근들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43만명에 달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방송은 한창 일할 나이에 부모에게 의존하며 놀고먹는 무위도식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부질없는 소동

《야외기동훈련》이니, 《혹한기진술훈련》이니 하는 갖가지 명목의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려왔다. 지금은 불의의 한결같은 반대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방방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호전파들이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리고있는 판에 그로 인한 사고가 어찌 빈번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지난 2008년 11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북침을 노린 대대적인 피괴통제 《KF-5E》 전투기가 논밭에 떨어져 박산났을 2009년 3월에 서해상에서 《KF-16》 전투기가 추락하였다.

전투기사고만이 아니다. 땅속에서 들어와 얼마 안되는 기간에만도 피괴 호전파들은

《야외기동훈련》이니, 《혹한기진술훈련》이니 하는 갖가지 명목의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려왔다. 지금은 불의의 한결같은 반대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방방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호전파들이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리고있는 판에 그로 인한 사고가 어찌 빈번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지난 2008년 11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북침을 노린 대대적인 피괴통제 《KF-5E》 전투기가 논밭에 떨어져 박산났을 2009년 3월에 서해상에서 《KF-16》 전투기가 추락하였다.

전투기사고만이 아니다. 땅속에서 들어와 얼마 안되는 기간에만도 피괴 호전파들은

가서 하면 피괴군사책동현상에서 발사한 포탄과 그 파편 때문에 무고한 주민들이 죽어나 부상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언제인가는 나물거리 갔던 할머니 2명이 피괴군이 쏘아댄 포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으며 직승기에서 발사된 실탄이 사살구멍의 천정을 뚫고 날아나오는 사실도 있다.

지금 남조선군은 전투기들의 편이든 추락사고와 관련한 같은 기종의 전투기들의 비행을 단절금지시키고 점검놀음을 벌린다. 사건을 조사한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것이다. 호전파들이 어족을 반대하는 위험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남조선에서 이런 사고와 재난은 절대로 가시질 없다.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은 지금 그 무슨 《원칙고수》론을 집요하게 들고나오면서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극구 정당화하고있으며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리명백은 그 무슨 《기념일설》이라는 데서 지난 2년동안 《일방적인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식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파편적인 꾀변을 늘어놓던 끝에 우리가 저들을 《경제협력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소리를 냈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도 이에 반발을 맞추면서 《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한다.》는 1. 《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관계는 있을수 없다.》느니 하는 소리로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악화시킬 기도를 드러냈다. 한편 《통일부》페기리들은 이전 《정권》시기 나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려놓고 그것을 《남북경제협력 핵문제를 인권문제를 편견》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시켰으며 조선반도핵확산을 표현도 《북비핵화》로 바꾸어버렸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의 궁극적목적은 북침야망의 실현이다.

보수세당은 언제 한번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적이 없다. 저자들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북남공동선언인들의 진전을 병행한 내용들을 다 뛰어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일뿐이다. 대결판심자들은 항시적으로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대항하며 여러석대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왔다. 저자들이 우리에게 대한 대가들을 반드시 청구한다는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방어》훈련의 외교를 쓴 북침선제공격연습

력사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들이 감행해온 합동군사연습들은 어떤 명칭으로 진행되었던지나 다 북침전쟁도발을 노린것으로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고도로 격화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은 이전의 《연합시중원연습》의 명칭을 바꾼 대규모의 전쟁연습으로서 《유사시》 해외로부터 증강되는 미군병력을 조선전선에 신속히 투입전개하고 피괴통제정의 합동으로 전진적인 북침공격을 단행하기 위한 매우 도발적인 불장난이다. 《연합시중원연습》이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으로 생길수 있는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이며 1994년부터 해마다 감행해온것이라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이것이 2008년부터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으로 간판이 바뀌었던것과 그 뿌리는 여전히 북침전쟁시행전쟁으로 악명떨친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다. 이것만 놓고서도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위정성은 이미 폭로필대로 되었다.

《방어》훈련의 외교를 쓴 북침선제공격연습

력사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들이 감행해온 합동군사연습들은 어떤 명칭으로 진행되었던지나 다 북침전쟁도발을 노린것으로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고도로 격화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은 이전의 《연합시중원연습》의 명칭을 바꾼 대규모의 전쟁연습으로서 《유사시》 해외로부터 증강되는 미군병력을 조선전선에 신속히 투입전개하고 피괴통제정의 합동으로 전진적인 북침공격을 단행하기 위한 매우 도발적인 불장난이다. 《연합시중원연습》이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으로 생길수 있는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이며 1994년부터 해마다 감행해온것이라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이것이 2008년부터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으로 간판이 바뀌었던것과 그 뿌리는 여전히 북침전쟁시행전쟁으로 악명떨친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다. 이것만 놓고서도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위정성은 이미 폭로필대로 되었다.

성명 발표

성명은 더우기 여기에서 《정권》이 동조해나섰으므로 저들의 반민족대결책, 반통일정책을 스스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비난하였다.

미국과 현 당국이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즉시 중지하고 조선반도평화실현에 성실히 나아가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핀란드 단체 출품

핀란드조선협회와 주재사상연구 핀란드연맹이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을 규탄하여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말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이 집중투입되며 지역 민간부까지 동원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의에 신계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다. 미국과 남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은 지금 그 무슨 《원칙고수》론을 집요하게 들고나오면서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극구 정당화하고있으며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리명백은 그 무슨 《기념일설》이라는 데서 지난 2년동안 《일방적인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식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파편적인 꾀변을 늘어놓던 끝에 우리가 저들을 《경제협력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소리를 냈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도 이에 반발을 맞추면서 《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한다.》는 1. 《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관계는 있을수 없다.》느니 하는 소리로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악화시킬 기도를 드러냈다. 한편 《통일부》페기리들은 이전 《정권》시기 나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려놓고 그것을 《남북경제협력 핵문제를 인권문제를 편견》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시켰으며 조선반도핵확산을 표현도 《북비핵화》로 바꾸어버렸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의 궁극적목적은 북침야망의 실현이다.

보수세당은 언제 한번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적이 없다. 저자들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북남공동선언인들의 진전을 병행한 내용들을 다 뛰어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일뿐이다. 대결판심자들은 항시적으로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대항하며 여러석대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왔다. 저자들이 우리에게 대한 대가들을 반드시 청구한다는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은 지금 그 무슨 《원칙고수》론을 집요하게 들고나오면서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극구 정당화하고있으며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리명백은 그 무슨 《기념일설》이라는 데서 지난 2년동안 《일방적인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식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파편적인 꾀변을 늘어놓던 끝에 우리가 저들을 《경제협력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소리를 냈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도 이에 반발을 맞추면서 《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한다.》는 1. 《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관계는 있을수 없다.》느니 하는 소리로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악화시킬 기도를 드러냈다. 한편 《통일부》페기리들은 이전 《정권》시기 나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려놓고 그것을 《남북경제협력 핵문제를 인권문제를 편견》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시켰으며 조선반도핵확산을 표현도 《북비핵화》로 바꾸어버렸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의 궁극적목적은 북침야망의 실현이다.

보수세당은 언제 한번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적이 없다. 저자들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북남공동선언인들의 진전을 병행한 내용들을 다 뛰어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일뿐이다. 대결판심자들은 항시적으로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대항하며 여러석대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왔다. 저자들이 우리에게 대한 대가들을 반드시 청구한다는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성명 발표

제정군을 노린 위험천만한 전쟁계획에 대해 강행되는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결의로는 《대화》를 떠벌며 대화상태방인 북침전쟁의 불도기니에 밀어넣으려하는것과 같은 이중적태도를 취하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 발표

성명은 더우기 여기에서 《정권》이 동조해나섰으므로 저들의 반민족대결책, 반통일정책을 스스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비난하였다.

미국과 현 당국이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즉시 중지하고 조선반도평화실현에 성실히 나아가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핀란드 단체 출품

핀란드조선협회와 주재사상연구 핀란드연맹이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을 규탄하여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말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이 집중투입되며 지역 민간부까지 동원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의에 신계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다. 미국과 남

핀란드 단체 출품

핀란드조선협회와 주재사상연구 핀란드연맹이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을 규탄하여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말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이 집중투입되며 지역 민간부까지 동원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의에 신계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다. 미국과 남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은 지금 그 무슨 《원칙고수》론을 집요하게 들고나오면서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극구 정당화하고있으며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리명백은 그 무슨 《기념일설》이라는 데서 지난 2년동안 《일방적인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식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파편적인 꾀변을 늘어놓던 끝에 우리가 저들을 《경제협력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소리를 냈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도 이에 반발을 맞추면서 《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한다.》는 1. 《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관계는 있을수 없다.》느니 하는 소리로 핵문제를 결코 북남관계를 악화시킬 기도를 드러냈다. 한편 《통일부》페기리들은 이전 《정권》시기 나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려놓고 그것을 《남북경제협력 핵문제를 인권문제를 편견》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시켰으며 조선반도핵확산을 표현도 《북비핵화》로 바꾸어버렸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의 궁극적목적은 북침야망의 실현이다.

보수세당은 언제 한번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적이 없다. 저자들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북남공동선언인들의 진전을 병행한 내용들을 다 뛰어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일뿐이다. 대결판심자들은 항시적으로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대항하며 여러석대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왔다. 저자들이 우리에게 대한 대가들을 반드시 청구한다는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대결전쟁책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남조선에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도전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